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October No.117

Contents

시황 및 추천펀드

- CIO 칼럼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CIO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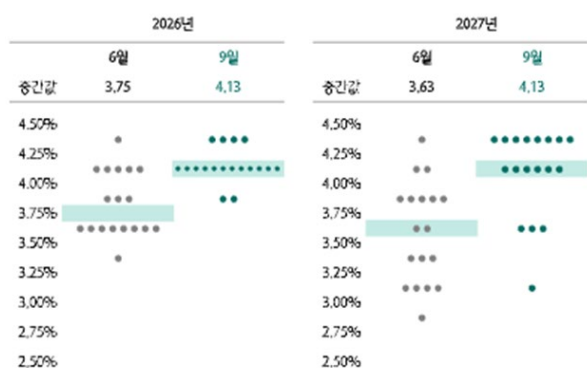
미 금리인상 사이클로 진입

미국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장기화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가운데, AI 투자 확대와 견조한 고용 및 소비 등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우려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인상에 이어 연내 12월 추가 1회 인상이 예상되며, 물가 안정이 지연될 경우 2027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올해 성장률은 3.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수요 측 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3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과 8월 금리 인상에 이어 11월 추가 인상이 전망되며, 이후에도 기초적인 물가 흐름에 따라 내년 추가 1~2회의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중심으로 최근 매크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정책이 다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공급 차질과 재고 부족, 중국의 원유 수입 재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고유가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2차적인 물가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Fed, ECB,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재차 강화되면서 장기금리의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美 FOMC 6월 점도표



韓銀 연내 1번 추가 금리 인상,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

국내 환경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카드 소비 모멘텀 약화 등으로 내수 회복의 확산 속도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한 후,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내년에는 1회를 넘어 최대 2회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져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은 대기업 등의 환매와 은행채 발행 확대가 맞물리면서 유동성 여건이 다소 악화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단기물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반면, 장기물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의 최대 3.75%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장단기금리 스프레드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 시나리오별 GDP 및 물가상승률 전망 조정치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전망

(%, %p)	2025	2026 ¹⁾	2027 ¹⁾
기본 시나리오	1.1	3.3	2.9
반도체 경기 ²⁾ 낙관		+0.2	+0.6
반도체 경기 ²⁾ 비관		-0.1	-0.4
중동상황 ³⁾ 낙관		+0.1	+0.2
중동상황 ³⁾ 비관		-0.1	-0.3

주: 1) 기본 시나리오 대비 성장률 변동폭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8월)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p)	2025	2026 ¹⁾	2027 ¹⁾
기본 시나리오	2.1	2.7	2.3
반도체 경기 ²⁾ 낙관		+0.0	+0.2
반도체 경기 ²⁾ 비관		-0.0	-0.1
중동상황 ³⁾ 낙관		-0.1	-0.3
중동상황 ³⁾ 비관		+0.1	+0.4

주: 1) 기본 시나리오 대비 물가상승률 변동폭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8월)

* Source : 한국은행

한수일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채권/ETF운용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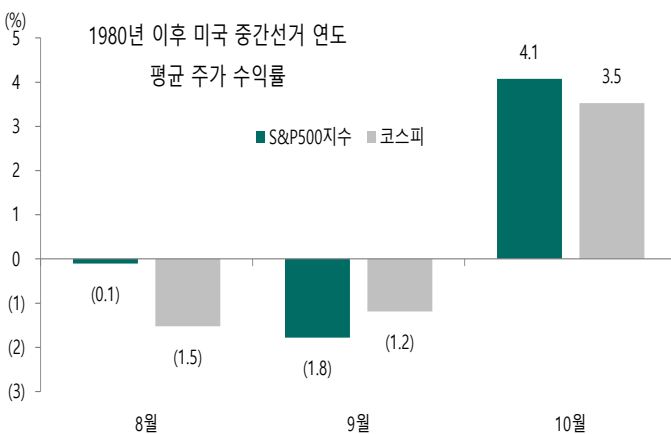
시장전망

9월 국내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압력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주도로 KOSPI 지수는 3.83% 상승하였습니다. (9월 23일 기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고조로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를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유가 급등과 금리 상승 압력이 증시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OpenAI의 'ASTRA'와 Meta의 'Muse'가 잇달아 공개되며 AI 분야의 기술적 돌파구(Breakthrough)를 재차 증명했습니다. 9월 시장은 이러한 악화된 매크로 환경의 하방 압력과 AI 혁신이 견인하는 펀더멘털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연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을 시사하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의 고점 통과 및 인하 전환 시점을 둘러싸고 연준의 점도표와 채권 시장의 금리전망 간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었습니다.

10월에도 유가·금리 압박과 AI 펀더멘털이 충돌하는 탑다운·바텀업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겠으나, 1980년 이후 10월 상승 확률 81.8%를 기록한 미국 중간선거 특유의 계절성에 주목합니다. 과거 중간선거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 통계적으로 안도렐리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준과 시장 간의 이견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이 상존하겠으나, AI 펀더멘털과 계절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지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증시 패턴: 8~9월 약세 후 10월 반등



* 출처: 하나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업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재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1.55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0.62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1.93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1.00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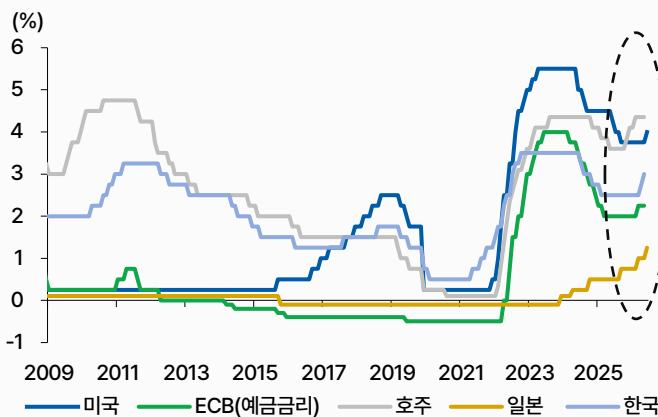
9월 금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워시 美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 美 금리 상승 영향으로 월중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9월 FOMC의 25bp 인상 및 추가 인상 시사에도 유가 하락, 美 장기금리 안정,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월간 금리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9/22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20.2bp)

10월 금리는 9월 FOMC 이후 높아진 주요국 정책금리 경로와 국내 추가 인상 기대를 반영하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美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 외 주요국들도 금리 정상화를 이어가고 있어,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는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한 만큼,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인상의 영향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호한 성장 흐름과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통화 긴축 종료로 보기는 이르며, 11월과 내년 중 각각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합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중동 정세와 공급 정상화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가 안정 시, 금리도 하향 안정될 수 있으나 재차 상승할 경우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절대금리 수준이 금리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가운데, 대외금리와 유가 흐름에 따라 등락하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합니다.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 출처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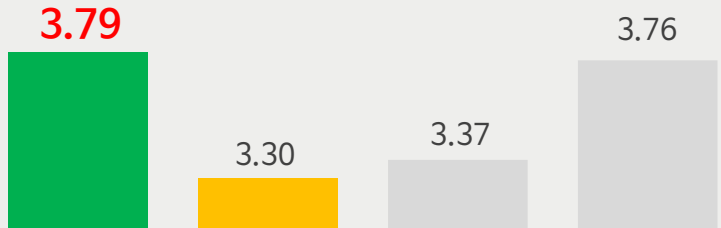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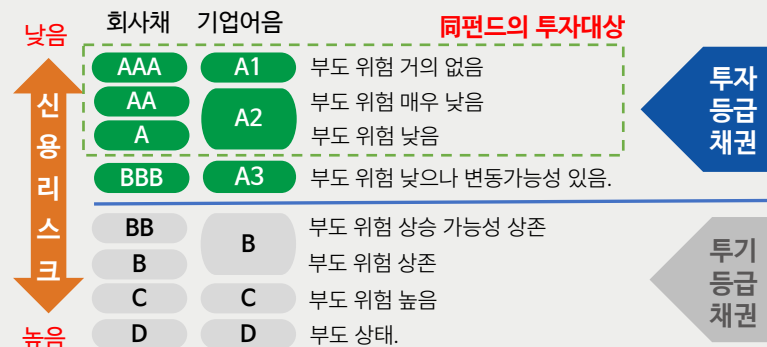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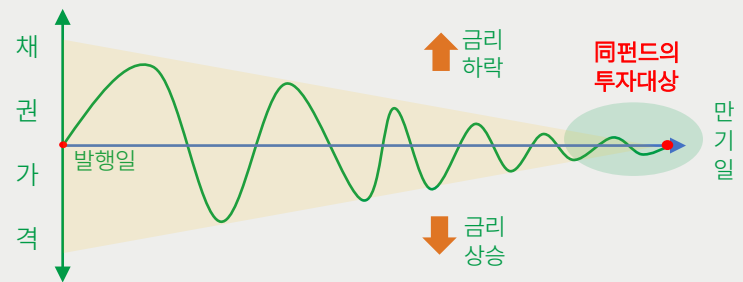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7월 31일 기준)

-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합성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0.3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2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0.4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3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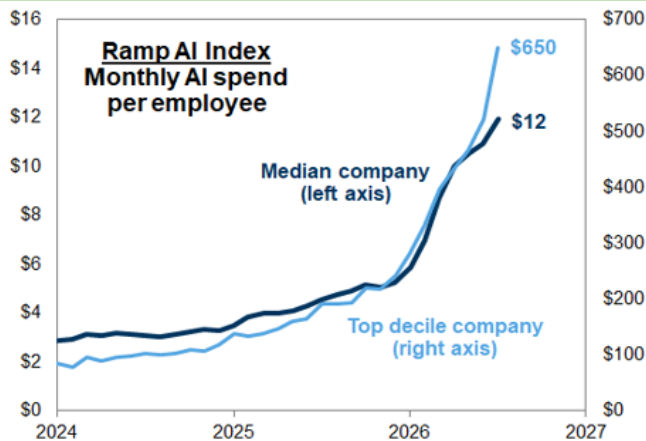
시장 전망

9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월 초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야기하였고,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9월 중순 열린 FOMC에서 미 연준은 3년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며, 케빈 워치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유럽 및 일본 중앙은행 또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원유 공급 여건으로 국제유가가 재차 하락하였고, 견조한 경제지표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AI 관련 신제품 출시가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며, 9월 후반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만들고, 이것이 대규모 AI 투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맞물려 시장금리의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미국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급변하는 와중에,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에 아직 증시에서 빠져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란 전쟁 상황과 유가 및 시장 금리의 흐름 등 매크로 변수와 더불어, 10월 실적 시즌에서 AI 관련 기업의 강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며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1인당 AI 관련 비용 지출



* 출처 Ramp,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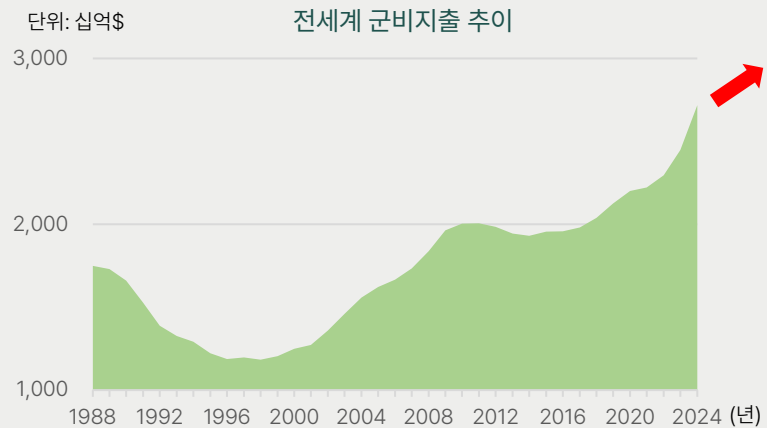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삼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53%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391%),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69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35%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413%),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74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9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이 격화되며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금리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이란 유조선을 격침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및 후티 반군 세력은 사우디 송유관을 공격하고 예멘 쪽의 우회 항구를 막았습니다. 이에 WTI 유가는 \$100을 상회하여 시장에 우려를 야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25bp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예상치를 상회한 PMI 지표는 실질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10년 +41bp, 독 10년 +28bp)

9월말 미국에서 열리는 UN총회에서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10월 원유 가격은 9월 대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공행진을 했던 금리 또한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4회 수준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Capex 로 인한 GDP 성장을 상향 조정은 금리 상승의 재료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펀드입니다. 미-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되어 캐리 매력이 상승하였으며, 중기물의 듀레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당 펀드의 향후 수익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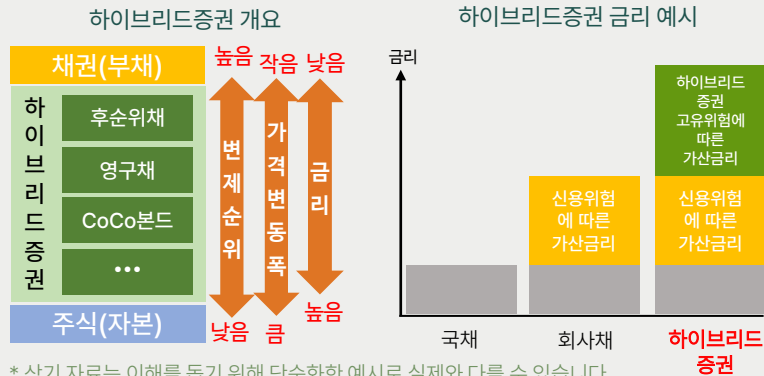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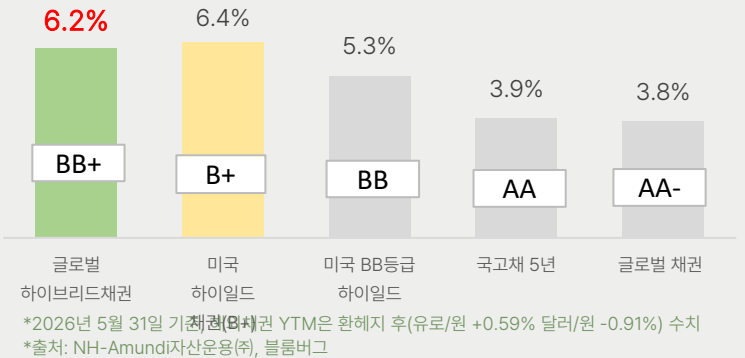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422%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72%,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 이내 발생 가능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365%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15%,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 이내 발생 가능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와 자료 내 포함된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 종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